

현대오일, 영업 담당임원 전격 교체

밥 폴락 전무, 영업본부장 임시 겸임 ... 성과 미흡한 임원 경질조치

현대오일뱅크가 최근 국내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을 바꾸는 등 영업라인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.

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6월23일 “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던 모 전무를 보직대기 발령하고, 감사 업무를 책임져온 외국인 임원인 밥 폴락 전무가 겸임토록 했다”고 밝혔다.

관계자는 “밥 폴락 전무는 임시 겸임한다는 전제 아래 보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과도체제인 셈”이라면서 “적절한 때에 새 영업본부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”고 강조했다.

현대오일뱅크는 앞서 4월말 국내영업 라인의 상무 2명과 해외 원유구매 및 수출 관련업무를 맡아온 상무 1명 등 모두 3명에 대해서도 목표달성 미흡 등을 이유로 경질 조치한 바 있다.

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(70% 지분)인 Hanocal Holding B.V의 모기업인 IPIC측이 서영태 사장을 통해 영업실적 악화 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이견 등을 이유로 내세워 중역 물갈이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현대오일뱅크측은 “목표달성 여부를 놓고 판단한 단순한 인사”라고 설명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고흥규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6/26>